

# 이재명 현장에서... '식사 정치' 재개

### '사법리스크' 이슈 거리 두기

### 민생·소통·통합 행보 가속

### 20명 안팎 3선 의원 오찬만남

### 오늘 전주서 현장 최고위 회의

당직 인선과 조직 개편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 이슈에 일정 정도 거리를 두면서 민생·소통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검찰발 '사법 리스크'에 연연하지 않고 제1야당 수장으로 '민생 최우선'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내 비주류 진영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사 등 당 지도부 인사들의 강경 발언에 대해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 대표는 15일 당내 3선 중진 의원들과의 오찬을 시작으로 추석을 전후해 중단했던 '식사 정치'도 재개했다. 국회 앞 한식집에 마련된 오찬에는 20명 안팎의 3선 의원들이 모였고, 이 대표는 오찬에서 "현장 중심으로 일하자. 2년간 코로나 때문에 현장을 제대로 못 챙긴 것 같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초·재선 의원들은 규모가 큰 만큼 그

를별로 쪼개어 만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임위원장 간사단과의 식사를 겸한 회의도 협의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강조했던 당원들과의 소통 행보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전날 최고위에서 당 홍보소통위원회를 홍보위와 국민소통위로 분리, 개편한 것도 이 대표의 주문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뉴미디어 대응력을 높이고 소위 '스마트 정당'을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전략실을 신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를 주제로 당원들과 타운홀 미팅도 한다. 이어 16일 오전에는 전주에서 최고위 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다. 지난 2일 광주에서 처음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2편격이다.

6·1 지방선거와 8·28 전당대회 과정에서 드러난 호남 민심 이반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매주 1회는 지역현장에서 최고위를 열 예정"이라며 "호남 민심을 챙긴다는 차원에서 광주에 이어 전북을 찾은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 비주류 진영 일각에서는 지도부 강경파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

다. 정청태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라디오에서 "이러다가 (윤 대통령이) 임기는 다 채우겠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밝혔고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난 8일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이 나라 최고권력인 대통령의 권력에 쫓겨 앞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고 탄핵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조영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무지와 무능은 탄핵의 법적 요건이 아니다"라며 "탄핵은 합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지금 여러 여건을 보면 (특검) 실현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집권 초기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공세가 지나칠 경우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인한 국민적 반감으로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광주지역 모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경제가 제자리를 찾았다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사정 당국의 무리한 수사는 국민적 공감이 있는만큼 지도부 인사들이 보다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외자유치·농수산물 수출·문화예술 교류 김영록 지사, 9일 일정 18일 미국 방문

### 코로나19 이후 첫 해외 방문

### 정원박람회·전남 방문의 해 홍보

김영록 전남지사는 18일 외자유치와 농수산물 수출, 전남 방문의 해 홍보 등을 위해 9일 간의 일정으로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코로나19 이후 첫 해외 방문으로, 특히 미국은 2018년 9월 이후 4년 만이다.

김 지사는 18-19일(현지 시각) 첫 방문지인 시카고에서 시카고현대미술관과 시카고미술관을 잇따라 방문해 미술관 전시 프로그램과 운영 시스템을 공유하고 지난 2021년 개관한 전남도립미술관과의 교류를 논의한다.

21일 미주리주 캔자스시에서는 더그린코리아(TGK·The Green Korea)와 대규모 글로벌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미션8기 1호 외국인 투자협약을 할 예정이다.

22일엔 미주 지역 최대 한인 축제인 제49회

LA한인축제에 참석한다. 매년 축제에서 농수산물 엑스포 코너에 전남지역 여러 농수산물기업이 참가해 동포들에게 직접 남도의 맛과 상품을 알렸다. 이번에도 전남을 대표하는 26개 기업이 함께 참여해 안전한 고품질 농수산물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23일 전남도 농수산물식품 전용 온라인 쇼룸을 인 '남도장터US' 공식 오픈식을 갖는다. 아마존 '전남 브랜드' 개설과 '미국 코스트코' 입점에는 전남도 자체 브랜드 쇼룸을 개장으로, 전남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어 LA 옥스퍼드 팰리스호텔에서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 홍보를 위해 열리는 관광설명회에 참석한다. 김 지사는 전남 방문의 해 관련 관광콘텐츠와 지역 관광상품 소개뿐만 아니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23 국제 농업박람회, 2023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등 국제행사 등을 홍보한 후 귀국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이정선 교육감 국회·교육부 찾아 청사이전 등 현안 지원 요청

### 기재부 예산실장 만나 협조 당부

### 광산교육지원청 신설도 요구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시 교육청 청사 이전과 광산교육지원청 신설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교육감은 15일 국회에서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만나 시 교육청 청사 이전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교육감은 "시 교육청 청사는 지은 지 33년이 지나 노후한데다 근무공간도 전국 교육청 청사 가운데 가장 비좁다"며 "주차 시설이 부족해 각종 교육 회의나 학부모 행사 등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교육감 선거가 정부 예산안 확정시기와 맞물리면서 청사 이전 예산안을 제때 제출할 수 없었다"며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광주 교육계의 숙원이 다소나마 해소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예산실장은 "청사 이전의 필요성과 다급함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에 앞서 이날 열린 광주시의회 본회의에 참석,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들에게 청사 이전과 교육지원청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 교육감은 14일에는 국회를 방문, 광주 전남



이정선(오른쪽) 광주시교육감이 14일 국회를 방문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광주시교육청 현안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출신 교육위원회 위원인 서동용, 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광주지역 국회의원을 면담했다.

서동용 의원은 "청사 이전의 필요성은 충분히 보인다"며 교육부 예산 심의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 의원은 "광산교육지원청 건은 대통령 시행령과 연관돼 교육부 의지가 중요하다"며 "시 교육청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교육감은 16일 교육부를 방문한다. 광주교육청 청사는 1988년 신축돼 33년이 지났으며 당초 직원 142명 기준으로 사무공간이 계획됐으나, 현 근무 인원이 487명으로 포화 상태다.

장애인, 여성 근로자의 법적 휴게공간 확보가 어려우며, 주차 시설 미비로 각종 교육활동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지방정가

### 홍기월 시의원 "자산유원지 공공주도 개발을"

광주의 대표 관광 명소였던 자산유원지를 공공주도로 개발해 옛 명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홍기월 의원(동구1·사진)은 15일 제310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자산유원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광주시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언제부턴가 광주시는 '노점시티'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전국 광역자치단체 방문객 순위는 하위 4위에 머물고 있다"며 "1980년대 광주시의 대표 관광지이자 지역민의 쉼터였던 공간인 자산유원지를 활성화해 과거 명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유원지 시설에 대한 공



공성 강화와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현재 광주시에서 검토 중인 신양파크호텔 공유허용방안과 자산유원지 활성화 방안을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무등산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동명동, 양림동 등 도시재생의 대표지역을 엮는 문화생태관광벨트 조성을 제안했다. 지난 1978년 문을 연 자산유원지는 소풍, 수학여행, 신혼여행지 등으로 사랑받은 대표 관광지였으나 1994년 부도 이후 쇠락을 거듭하면서 옛 명성을 잃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서임석 시의원 "자립 청소년 멘토-멘티 필요"

광주시의회 서임석 의원(남구·사진)은 15일 "광주지역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해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의 정서적 지원을 위해 멘토-멘티 시스템의 강화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열린 제31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현재의 멘토-멘티 시스템은 갑자기 낯설은 타인과의 매칭으로 인한 참여율 저조, 퇴소 후에도 끊임없이 지도·관리 받는다는 거부감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능동적 참여를 위한 수평적 시스템 구성, 지속성을 위한 일상 속 1대1매칭 시스템, 참여 방식의 변화를 위한 영국의 개인



상담사 제도를 차용한 전담 멘토-멘티 시스템의 도입 등을 제안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광주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아동복지시설 632명, 가정 위탁 310명 등 942명이다.

만 18세가 되면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 위탁 보호가 종료되는데, 광주에서는 올해 236명의 보호가 종료됐다. 지난 2017년부터 작년까지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은 530명에 달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매월과정)**  
일시: 2022.9.13 (화) 오후7시  
장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수강료: 풍수 + 사주 20만원 (매월)

**공개강좌(무료)**  
일시: 2022.9.6 (화) 오후7시  
장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대상: 누구나 (선착순 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액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2246-1508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63 - 9번지	264.8㎡
963 - 10번지	254.2㎡
963 - 11번지	225.8㎡
963 - 12번지	195.0㎡
- 합 계 -	
939.8㎡ 구 (284.3평)	

**매매가 71억원**

일반상업용지 용적율 1,100%  
사육 및 메디컬센터 신축 부지 적합

(주) GK파트너스 컨설팅 010-3625-1362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